

피클볼에 대한 국내 종사자의 인식과 평생스포츠로서의 적합성 탐색

이정연¹ · 이경은² · 허진무³

¹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²연세대학교 박사과정 · ³연세대학교 교수

Exploring Industry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Pickleball in South Korea and Its Suitability as a Lifetime Sport

Lee, Jung Yeun¹ · Lee, Kyung Eun² · Heo, Jinmoo³

¹⁻³Yonse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erceptions of pickleball among accredited individuals working within the pickleball industry in South Korea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Grounded in the theory Diffusion of Innova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diffusion stage of pickleball as an emerging sport and identifies its current position and perceived attributes within the South Korean market. Moreover, this study seeks to generate meaningful insights that can support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pickleball, while also highlighting its suitability as a lifetime sport.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ho are actively involved in pickleball and possess direct experience and knowledge of the sport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explore both the explicit and underlying perceptions of pickleball. In doing so, it provides a grounded understanding of how the sport is interpreted, socially accepted, and positioned within the local sporting landscape. From the results, five overarching themes were identified, revealing key factors that contribute to viewing pickleball as an accessible and sustainable lifetime sport. Furthermor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ublic health and sport industry of South Korea by providing empirical insight to developing emerging sports such as pickleball, and adds value to the understanding of lifetime sports.

Key words : pickleball, emerging sport, lifetime sport, new sport, diffusion of innovations, sport perception

주요어 : 피클볼, 평생스포츠, 뉴스포츠, 혁신확산, 스포츠 인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Heo, Jinmoo

E-mail: heoj@yonsei.ac.kr

Received: April, 29, 2026 Revised: June, 2, 2026 Accepted: June, 8, 20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피클볼은 1965년에 미국 Washington 주에서 Joel Pritchard, Bill Bell and Barney McCallum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탄생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고(Greiner, 2019), 또한 호주 및 아시아 지역에서도 피클볼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여가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Chen et al., 2021; Larkin, 2024).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피클볼 동호인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여성 피클볼 동호인은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욱, 2025). 대한 피클볼협회에 의하면 전국 클럽 현황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서울권 19개, 경인권 36개, 강원권 9개, 충청권 28개, 전라도 8개, 경상권 47개, 제주도권 3개로 총 150개의 클럽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당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동호인 지역은 고양시, 광주시, 거창군 등 3개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약 7년이 지난 현재에는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되며, 지역 기반 또는 연령대 기반의 동호회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피클볼이라는 뉴스포츠 종목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임우택(2001)에 따르면, 뉴스포츠는 아직 명확하게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기존의 전통 스포츠와는 다른 형태로 개발되었거나 재구성된 스포츠로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과 장비가 단순화된 생활체육 중심의 스포츠라고 하였다. 한국뉴스포츠협회에 따르면 게이트볼, 킬링, 디스크골프, 티볼 등의 종목들이 대표적인 뉴스포츠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클볼 또한 테니스, 배드

민턴, 탁구의 요소를 결합한 스포츠로, 단순화된 규칙과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Firouzbakht et al., 2025). 피클볼은 비교적 작은 패들과 코트를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테니스에 비해 움직임이 적고 공의 속도 또한 느린 편이다(Vitale & Liu, 2020). 이러한 낮은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사전 훈련 없이도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학교 체육 및 생활체육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노년층에서 높은 접근성을 지닌 종목으로 피클볼은 은퇴자들에게 풍요로운 여가활동이 될 수 있다(Ryu et al., 2018).

피클볼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피클볼은 사회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Lee et al., 2025),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뉴스포츠로서 중·노년층의 성공적 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여가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김명기, 이경은, 허진무, 2025).

국외 연구의 경우, 피클볼 참여 경험과 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어 왔으며(Casper et al., 2023; Casper et al., 2024; Stroesser et al., 2024; Webber et al., 2023), 이와 함께 부상 위험과 같은 신체적 측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다 (Greiner, 2019; Owoeye et al., 2025; Prayudho et al., 2024).

반면, 국내에서는 피클볼이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스포츠라는 점에서 연구의 축적이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까지는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었으며(김지훈 & 김로빈, 2021; 박광호 & 조은영, 2020; 임수아, 이록빛, & 허진무, 2022), 교육 보급 및 확산을 다룬 질적 연구 또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강소정, 이상희, & 허진무, 2024; 손유민, 2011; 정용문 & 김종원, 2025).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피클볼의 참여, 건강 효과, 그리고 일부 제약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으나, 사회적 인식이나 뉴스포츠의 확산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피클볼은 다양한 장점과 잠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스포츠로서의 개념적 정립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새로운 스포츠의 확산과 정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해당 스포츠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Rogers (2003)의 혁신확산이론은 사회에서 혁신이 어떻게 전파되고 수용되는지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피클볼의 인지도 수준과 해당 종목이 어떠한 인식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뉴스포츠의 수용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피클볼이 현대 혁신 스포츠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Rogers(1995)은 혁신을 개인,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해 새롭게 인식되는 아이디어, 관행 또는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확산(diffusion)은 혁신이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사회 체계의 구성원들 사이로 전달되는 사회 변화의 과정으로 설명된다(Rogers, 2003). 이러한 관점은 새로운 스포츠 종목이 사회 내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인식되고 수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클볼이라는 종목이 현재 국내 스포츠 시장 내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어떠한 맥락 속에서 확산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피클볼 산업 종사자들의 심층적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Rogers(2003)는 혁신의 확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채택 곡선(rate of adoption over time)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혁신 채택자는 채택 시기에 따라 혁신가(innovators), 초기 수용자(early adopters), 초기 다수자(early majority), 후기 다수자(late majority), 지각 수용자(laggards)로 구분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Rogers는 혁신이 사회 내에서 확산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개인이 혁신을 수용하게 되는 의사결정 과정에도 주목하였다. 그는 혁신 의사결정 과정(innovation-decision process)을 통해 개인이 혁신에 대한 지식(knowledge)을 습득하고, 설득(persuasion), 결정(decision), 실행(implementation), 확인(confirmation)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지식 단계에서는 혁신에 대한 인지와 기본적인 정보와 특성에 대한 이해가 형성되며, 특히 설득 단계에서는 해당 종목 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Rogers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적합성(compatibility), 복잡성(complexity), 시험가능성(trialability), 관찰가능성(observability)과 같은 다섯 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결정 단계에서는 채택(adoption) 또는 거부(rejection)를 선택하게 되며, 실행 단계에서는 실제로 해당 종목을 사용하고 경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혁신의 채택 여부와 확산 속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Tornatzky & Klein, 1982).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피클볼이 지닌 특성과 국내 확산 과정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종목이 국내 스포츠 환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수용되고 있는지, 나아가 어떠한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피클볼 산업 종사자들은 피클볼의 도입과 확산 과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피클볼 산업 종사자들은 피클볼의 특성과 참여 경험, 그리고 국내 스포츠 환경 속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피클볼은 평생스포츠로서 어떠한 적합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국내 피클볼 산업 종사자의 인식을 통해 피클볼의 도입 및 확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참여자자를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피클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여 연구참여자자를 모집하였다(Patton, 2015).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피클볼 대회에 선수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경기 참여 경험을 통해 종목의 특성과 참여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집단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내외 피클볼 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확보하기 위하여 클럽 운영자, 선수 경험자, 협회 관계자, 지도자 등 종목과 관련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자를 포함하였다. 특히 피클볼이 미국에서 도입된 종목이라는 점에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참여자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피클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통해 피클볼의 단순 참여 경험을 넘어, 교육, 운영, 행정 등 종목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인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내 피클볼의 도입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과정과 확산 양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피클볼의 사회적 인식과 확산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목이 국내에 도입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참여자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총 10명의 연구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는 남성 5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28세에서 47세까지 분포하였다. 피클볼 참여 경력은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장기 참여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참여자 구성은 국내 피클볼의 도입 과정, 참여 구조, 확산 양상, 그리고 제도적·사회적 인식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 풍부 집단(information-rich cases)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Patton, 2015).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국내 피클볼의 현재 위치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데 적절한 정보 제공자로 판단된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피클볼 참여 경험과 국내 피클볼 산업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심층면담을 활용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연구 목적과 협조를 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였으며, 면담 일정과 방식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10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No.	성별	연령	참여연차 (년)	종목 관련 경력사항
A	남	32	10	외부 강사
B	여	47	9	협회 이사
C	남	28	8	클럽팀 운영
D	여	37	8	오픈부 선수
E	남	36	9	피클볼 대학 강의
F	남	31	7	외부 강사
G	여	28	2	협회 간사
H	여	33	8	협회 이사
I	남	29	3	오픈부 선수
J	여	36	5	피클볼 대학 강의

연구자는 피클볼 참여 경험과 국내 인지도 관련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을 연구참여자와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술할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대면 면담으로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면담 문항은 연구 목적에 따라 참여자의 경험과 인식을 다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질문의 적절성과 명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파일럿 면담(pilot interview)을 선행한 후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 전에는 참여자의 최근 피클볼 활동 경험과 근황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라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클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피클볼에 대한 첫인상과 이미지’, ‘참여 과정에서 느낀 변화와 진입장벽’, ‘피클볼의 장점과 한계’, ‘국내 피클볼 시장에 대한 평가’, ‘한국 스포츠 환경 내에서 피클볼의 위치와 성장 가능성’ 등과 같은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피클볼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 피클볼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피클볼의 현황을 탐색하고, 피클볼이 우리나라 스포츠 환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평생스포츠로서의 적합성을 갖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그 안에 내재된 의미 구조를 밝히는 데 의의를 둔다(이근호, 201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면담 녹음 자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전사하였으며, 참여자의 언어적 표현과 맥락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후 자료 분석은 Giorgi (2009)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 방법의 4단계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첫째, 전체적 이해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전사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피클볼 참여 경험과 국내 피클볼 산업에 대한 인식 전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의미 단위 구분 단계에서는 전사자료를 다시 검토하면서 경험의 흐름이 변화하거나 의미가 전환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의미 단위(meaning unit)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참여자가 피클볼의 접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진술과 동시에 시설 부족을 지적하는 진술은 서로 다른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클볼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의미 변환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일상적 언어로 표현된 진술을 학문적 용어로 재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원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경험이 이론적·개념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재구성하였다.

넷째, 구조 통합 단계에서는 변환된 의미 단

위들을 상호 비교 및 통합하여 공통된 의미를 중심으로 주제와 하위주제로 조직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단순한 주제 범주의 도출에 그치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의 lived experience에 내재된 본질적 의미 구조를 해석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Giorgi (1985)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은 개별 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이고 구조적인 진술로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절차를 통해 피클볼의 인지도, 도입 과정, 참여 특성, 그리고 국내 스포츠 환경 내에서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연구의 윤리성 및 진실성

본 연구는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No. 7001988-202601-HR-3047-01). 연구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모집되었으며,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료 활용 방식, 그리고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사전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면담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는 익명 처리하였으며 연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특히 면담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사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후 기록 및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가 갖는 활용 범위와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참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는 모든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프트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Guba와

Lincoln (1994)이 제시한 질적 연구의 준거기준을 적용하였다. 먼저, 자료의 신빙성(credi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분석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해석이 참여자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 검토(member check)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관련 전공 교수 1인과 박사 학위 소지자 1인의 검토를 통해 분석 결과와 해석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자료 해석의 신뢰성과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Ⅲ.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피클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피클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피클볼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뉴스포츠인 피클볼의 적용 가능성과 한국 사회에서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향후 국내 시장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조망하며, 나아가 피클볼이 평생스포츠로서 어떠한 적합성을 가지며,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결과는 총 10명의 경험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여 참여자로부터 도출된 현재 국내 피클볼 산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은 피클볼을 단순한 뉴스포츠로 인식하기보다는, 낮은 심리적·신체적 부담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세대 간 교류와 사회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밀착형 스포츠로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 체육시설 활용 가능성과 국내 스포츠 환경과의 적합성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지닌 종목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피클볼이 국내에서 평생스포츠로 자리 잡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본질적 구조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클볼에 대한 인식은 크게 내부적 인식과 외부적 조건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각 분류 내에서는 주요 범주와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1. 초기 인식

피클볼에 대한 초기 인식은 참여자들이 해당 종목을 처음 접하는 순간 형성된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인지적·정서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낯섬과 호기심 속에서 형성된 첫인상과 초기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첫인상’과 ‘인지도’의 두 가지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피클볼에 대한 첫인상

피클볼을 처음 접하거나 해당 종목의 명칭을 처음 들었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초기 인식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피클볼’이라는 명칭은 기존 스포츠 종목과 비교했을 때 다소 생소하게 인식되었으며, 전통적인 스포츠라기보다는 뉴스포츠 종목이나 놀이 수준의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인식과는 달리, 피클볼은 직관적인 재미와 흥미 요소를 지닌 활동으로 인식되었으며, 참여자들은 해당 종목에 대해 긍정적인 호기심과 흥미를 함께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주요 범주 및 하위 범주

분류	주요 범주	하위 범주
내부적 인식	초기 인식	피클볼에 대한 첫인상
		인지도
	낮은 진입장벽	짧은 학습 시간
		남녀 누구나 참여 가능함
		쉽게 느껴지는 요소들
	가족·노인 친화적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노인 친화적 특성
외부적 조건	기존 시설을 통한 구조적 기반	기존 학교·지역 체육시설
		라켓스포츠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시설 활용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국내 피클볼 시장의 현황
		초기 확산 단계
		국내 적합성

“사실 처음에는 정말 처음 들어본 이름이어서 그 피클볼이라는 단어만 듣고 그 인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뭔가 피자, 피클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조금 귀엽진 한데 이렇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 연구 참여자 H

“처음에 진짜 피클볼이라고 하면 먹는 피클? 이라고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접근을 스포츠로 접근하기보단, 약간 놀이나 뉴스포츠 약간 게임의 그런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 연구 참여자 D

이와 같은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클볼은 초기에는 생소하고 비전형적인 종목으로 인식되었으나, 동시에 직관적인 재미

와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진지한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참여해보고 진지하게 임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2) 인지도

피클볼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주변인 및 국내 일반 대중의 인지도 수준과 피클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형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피클볼의 인지도와 사회적 인식 수준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때 처음 들었을 때가 2016년도에는 제가 학부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테니스나 탁구나 배드민턴과 같은 유사하다는 느낌은 전혀 못 느꼈고, 그때 당시만 해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활동을 했던 거라 아무래도 실버스포츠 쪽으로 인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 참여자 A

“완전 피클볼이 초기일 때 50대, 60대 분들이 대부분의 참여자로 인식되었는데, 이제는 국내 피클볼 산업도 복식뿐만이 아니라 단식도 생겨나면서 젊은 20대, 30대 참여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느껴요. 프로를 꿈꾸는 젊은이들도 많고 국내에서도 피클볼을 위해 유학도 가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지도는 피클볼을 좋아하고 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 연구 참여자 D

“처음부터 피클볼은 인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아예 운동을 안 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말고.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치던 친구들은 그거는 테니스의 아류다, 아직 그거는 스포츠는 아니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C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한국에서는 피클볼시장을 개척하고 선점하거나, 터줏대감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서 독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 연구 참여자 I

위 개별 심층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피클볼의 인지도는 처음에는 노인 스포츠 이미지가 강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회를 중심으로 연령대가 세분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20대와 같은 젊은 선수들이 등장하여 프로 선수를 지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클볼은 국내에서 여전히 전반적인 인지도 수준이 낮은 종목으로 나타났으며, 대중적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피클볼은 현재 개척자처럼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목으로 나타났다.

2. 낮은 진입 장벽

피클볼을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피클볼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이었다. 참여자들은 피클볼의 장점으로 접근성과 참여 용이성을 강조하며,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클볼이 단순히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는 데 소요되는 시간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종목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다른 라켓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배드민턴이나 테니스의 경우 기본 기술을 습득하고 게임을 운영하기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 피클볼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피클볼은 하루 정도의 간단한 설명과 경험만으로도 실제 경기를 하고 기본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특성이 진입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진입 장벽은 지금까지 봤을 때 진짜로 피클볼의 특징 중의 특징인데, 특히 여성이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하루 만에 경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쉽게 시도해 보고 경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루 설명했을 때 바로 경기 진행이 된다는 거에 진입 장벽이 정말 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니스는 진짜 이거 스트로크 하나만 하는 데도 진짜 몇 개월이 걸리고 시합을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히 여성,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운동이나 스포츠에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설명 듣고 따라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게임이 된다는 거가 되게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해요” - 연구 참여자 B

“피클볼도 레벨에 따라서 되게 게임의 형태도 다르고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려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는 한데, 근데 이제 처음 입문을 해서 게임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른 라켓 운동에 비해서 월등히 짧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연구 참여자 H

“뭔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쉬워요. 채도 길지가 않고 짧고, 그리고 공도 막 이렇게 높게 튀는 것도 아니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편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테니스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공을 컨트롤해서 네트를 넘기는 게 어렵고 그 코트 안으로 집어넣는 게 어려운데 피클볼은 그런 거에 있어서 쉬우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엄청 빨리 할 수 있겠다,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느낀 거죠. 근데 점점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F

이와 같이 피클볼은 배우기 쉽고 빠르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점이 종목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피클볼의 짧은 학습 시간을 단순한 기술 습득의 용이성이 아닌, 스포츠 참여 과정에서 느껴지는 심리적 부담 감소와 초기 자신감 형성 경험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이는 Rogers(2003)가 제시한 참여 의도 특성 중 ‘복잡성(complexity)’이 낮게 인식될수록 수용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연결된다. 또한 피클볼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종목으로, 이러한 낮은 진입 장벽이 참여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자들은 이러한 특성이 동시에 양면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초기에는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피클볼을 스포츠로 인식하지 않거나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클볼은 입문 단계에서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높은 수준의 경기나 ‘오픈부’와 같은 경쟁 수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투자와 훈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기 참여는 용이하지만, 숙련 수준이 높아질수록 또 다른 수준의 경기 환경이 형성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3. 가족 · 노인 친화적

1)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본 연구에서 나타난 피클볼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피클볼이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노인을 포함한 다양

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손녀, 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대 통합적 스포츠로서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모두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함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친구나 아니면 가족끼리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사실 많지가 않은데, 피클볼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피클볼이 만들어진 것도 골프 여행을 떠난 가족들이 이제 모두가 함께 골프를 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소외된 가족들한테 즐기라고 만들어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랑도 맞게 원하면 누구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고” - 연구 참여자 H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여성, 어린이 이런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점은 사실 그 가족 누구나 엄마, 아빠나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세대나 이런 거 상관없이 성별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인천에 지금 송도 피클볼 클럽에는 가족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진짜 이게 가능하구나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실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인상적으로 남는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C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살펴보면, 피클볼은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가족 단위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에서는 ‘가족 리그’나 ‘가족 중심 클럽’이 형성될 정도로 실제 생활 속에서 가족 단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피클볼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참여자들은 피클볼을 단순한 운동 종목이 아닌 세

대 간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매개적 활동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연령과 수행 수준의 차이로 인해 함께 참여하기 어려웠던 가족 구성원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스포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피클볼이 가족 공동체의 유대와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노인 친화적 특성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피클볼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노인 친화적인 스포츠로서의 특성이 확인되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피클볼은 노인 스포츠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된 종목으로 보고되어 왔으며(이승범, 2025; 이상희, 류정수, 허진무, 2021),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다른 라켓 스포츠와 비교할 때 피클볼이 노인에게 적합한 종목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진술하였다.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계속 겪고 있잖아요. 나이 든 노인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배드민턴을 지금 치고 있는 노인분들이 아마 피클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테니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테니스에서도 나이가 점점 들고 뭔가 무릎이 아프고 팔꿈치가 아프면 ‘내가 테니스 백그라운드를 살려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보게 되는 과정에서 피클볼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F

참여자 F의 진술에서 나타나듯, 피클볼은 기존 라켓 스포츠 경험을 보유한 노인들이 신체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스포츠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대안적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이 느끼기에 피클볼은 단순히 체력 소모가 적은 운동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기존 스포츠에서 경험하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다. 특히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지속하기 어려워진 이후에도 기존의 스포츠 정체성을 나중이라도 유지할 수 있 점에서, 피클볼은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평생스포츠 종목으로 의미화되고 있었다.

"노인분들끼리 칠 때는 또 그분들끼리 모두가 70, 80대 노인들이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끼리 칠 때는 그 수준에 맞는 플레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클볼이 전 연령에게 가능하다는 이유를 그때 처음 받아들이게 됐어요."

- 연구 참여자 E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클볼은 신체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장기간 참여가 가능한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중·고령 참여자들의 참여 양상과 경기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형성한 인식으로, 참여자의 신체 조건과 수준에 따라 경기 방식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피클볼은 노인 친화적인 특성을 지닌 스포츠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기존 시설을 통한 구조적 기반

1) 기존 학교·지역 체육시설

피클볼은 별도의 시설 구축 없이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운영이 가능한 종목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환경적·구조적 조건이 종목 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학교 체육시설과 지역 체육인프라를 중심으로 피클볼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목이 점차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도 학교 체육관에서 공유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가 개방을 하면서 조금 이제 종목 자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 연구 참여자 A

"현재 초중고 학교에서 많이 지역 주민을 위한 피클볼 수업이나 그런게 많더라고요... 근데 구민 체육관이나 문화센터나 아니면 기존의 운동장을 확장하고 학교 체육관을 오픈해서 지역 주민들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더 생기면 좋겠어요."

- 참여자 B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클볼은 기존 학교 체육시설과 지역 체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확산되고 있는 종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체육 수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에 도입되면서 종목 인지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2) 라켓스포츠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시설 활용

피클볼은 앞선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타 라켓 스포츠와 비교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종목적 특성은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사실 전용 구장이 아직 한국에서는 적긴 해서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게, 현재 우리나라에 배드민턴 보급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배드민턴 코트랑 똑같다 보니까 그냥 줄 하나 굵고 배드민턴 네트를 내린다든지 이동이 가능한 포터블한 이동식 피클볼 네트를 사용하면 또 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연구 참여자 C

“국내에서는 실외 하드코트인 테니스장을 많이 활용해서 피클볼장을 만들어서 대회도 열고 해요.” -참여자 I

이러한 진술은 실제 운영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다.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 피클볼 활동에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24 코오롱 FnC 헤드 피클볼 코리아 오픈>은 테니스장 활용, <2024 자연특별시 피산 전국 동호인 피클볼 대회>은 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여 운영된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피클볼은 현재 공존하는 지역 체육시설이나 배드민턴장을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종목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피클볼이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이유 중 하나로, 배드민턴 코트와 동일한 규격을 기반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별도의 전용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은 피클볼을 지역사회에 이미 구축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상 속에도 쉽게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스포츠로 경험하고 있었다.

5.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1) 국내 피클볼 시장의 현황

현재 국내 피클볼 시장은 도입 초기와 비교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참여자들은 느끼고 있었다. 초기 수백 명 단위에 머물렀던 국내 참여 인구는 공식 피클볼 카페 회원수를 보면 약 9,000 명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클럽 수 또한 지역별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생활체육 영역에서 점차 기반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참여 인구,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었다.

“며칠 전에 한강 광나루인가 암사동 쪽에 12코트 실외 거기도 갔다 왔는데 진짜 지역 구마다 그런 실내 체육관 실외에 피클볼장이 점점 많이 생기고, 협회에서도 아마 내년에는 대한체육회에 가입되는 종목으로 될 것 같아요.” - 참여자 B

“피클볼에 인프라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고, 피클볼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는게 몸소 체감됩니다. 송도에도 얼마 전에 크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강남에도 피클볼 전문시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피클볼이 커졌다는 게 아닐까.” -참여자 I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참여 인구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협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기반 또한 형성되어 가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국내 피클볼은 참여 저변의 확대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제도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점차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초기 확산 단계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현재 피클볼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초기 확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피클볼의 사회적 위치는 국내 사회에서의 제도화 수준, 대중적 인지도, 그리고 정당성 확보 정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Rogers 2003; DiMaggio & Powell, 1983).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현재 피클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 전반

에 널리 알려진 종목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2025년 공식 법인으로 승인된 대한 피클볼협회의 설립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언급되었으나, 일반 대중에게는 협회의 존재나 제도화 수준이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회원 수가 갑자기 두 배 정도 늘었는데, 그 전까지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 연구 참여자 F

“지금 단계는 이제 막 정착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시초이긴 하지만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 참여자 B

한편, 시설 운영 측면에서도 아직 공공 영역보다는 민간 중심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다 폭넓은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 영역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사설로 만들어진 개인 사업체 중심으로 피클볼장이 많이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피클볼이 더 전파되고 커지면, 지역별 공공기관들이 장소와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할거 같아요.” - 참여자 D

피클볼은 최근 참여 인구 증가와 조직 기반 형성 등 성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여전히 해당 종목이 초기 확산 단계에 위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내 적합성

연구참여자들은 피클볼이 국내 환경에서 한국인들이 비교적 쉽게 즐기고 선호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빠른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과 비교해 볼 때, 골프와 같이 장시간과 이동이 요구되는 종목에 비해 피클볼은 도심 내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성격이 급하고, 골프같이 오래 걸리는 스포츠보다 짧은 게임 플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잘 하고 좋아할거 같습니다” -연구 참여자 G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문물을 빨리 받아 드리는걸 좋아하잖아요. 최신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것 같아요. 러닝크루, 하이록스 같은 새로운 액티비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빠르죠. 제 생각에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SNS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피클볼도 최근에 SNS에서 조금씩 보인다고들 주변에서 말하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I

피클볼은 탁구나 배드민턴과 같이 한국인들이 익숙하고 경쟁력을 보여온 라켓 스포츠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친숙성이 참여 장벽을 낮추고 더 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을거라고 의미화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 러닝 크루와 같은 운동 기반 커뮤니티 활동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스포츠 참여율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은 피클볼 또한 향후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며, 국내에서 하나의 인기 종목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을거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성장 가능성은 단순한 시장 규모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피클볼은 아직 완성된 스포츠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으로 경험되고 있었다. 따라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미래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기보다, 자신들이 직접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주체적 경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국내 피클볼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피클볼에 대한 경험과 인식에 내재된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참여자들이 피클볼을 어떠한 스포츠로 경험하고 의미화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탐색한 결과, ‘초기 인식’, ‘낮은 진입장벽’, ‘가족·노인 친화적’, ‘기존 시설을 통한 구조적 기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주제가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Rogers(2003)가 제시한 혁신 확산 과정 단계들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 사회에서의 피클볼은 국민들에게 ‘인지(knowledge)’ 단계를 넘어 ‘설득(persuasion)’ 단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현재 국내에서 피클볼이라는 종목은 혁신 수용자 또는 초기 수용자들이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고, 대중들은 피클볼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중 내부적인 인식들 ‘초기 인식’, ‘낮은 진입장벽’과 ‘가족·노인 친화적’ 같은 주제들이 피클볼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관적 인식들이며 피클볼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알아가면서 개인이 해당 종목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지를 결정하는 주요 단계라고 볼 수 있다(Rogers, 2003). 이어서, 외부적 조건들과 같은 ‘기존 시설을 통한 구조적 기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등은 확산의 혁신자들을 넘어서, 본격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피클볼

이 향후 ‘결정(decision)’ 단계로 전환되어, 사회적으로 수용(adoption)되거나 제한적으로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근접해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 피클볼이라는 뉴스포츠 종목은 현재 참여자들을 통해 내부적 인식과 외부적 조건을 형성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연구자들이 의미화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피클볼을 단순한 경쟁 스포츠로 인식하기보다 접근성과 사회적 연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참여 가능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스포츠로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내부적 인식과 외부적 조건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 참여자들이 피클볼을 국내 스포츠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확장 가능한 평생스포츠로 의미화하는 과정 속에서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클볼이 단순한 뉴스포츠를 넘어 평생스포츠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말한 ‘짧은 학습 시간’, ‘남녀 누구나 참여 가능함’,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노인 친화적 특성’과 같은 요소들은 연령, 성별, 신체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며, 또한 장기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평생체육이라는 말은 1965년 미국체육학회(AAHPERD)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여가교육 및 건강 증진의 맥락에서 점차 확장되어 왔다. 평생체육은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범죄, 도박, 약물 남용과 같은 사회병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의 건전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박문환, 2003). 이러한 흐름 속에서 평생체육은 점차 ‘평생스포츠(lifetime sports)’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의미한다.

유정애, 오수학(2000)은 신체활동이 단순한 건강 유지 수단이 아니라, 재미와 기술 습득, 그리고 성취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때 건강과 체력은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평생스포츠가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지속적인 동기와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재적 가치에 기반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유사하게, 이상희 외(2021)의 연구에서도 미국 노인들의 피클볼 참여와 경험을 통해 해당 활동이 단순한 일차원적인 여가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사회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클볼 참여는 노년기에도 성공적 노화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즉, 평생스포츠로서 적합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스포츠가 평생에 걸쳐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접촉이나 충격이 큰 종목의 경우 외상 및 과사용 부상의 위험이 높아 장기적인 참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평생스포츠로서의 적합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문환,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피클볼은 낮은 신체적 부담, 비교적 안전한 경기 환경,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 생애를 통하여 참여하기에 적합성이 높은 종목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피클볼은 테니스보다 작은 코트, 간단한 규칙과 짧은 학습 시간,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Vitale & Liu, 2020), 이러한 특성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Ryu et al., 2018). 따라서 피클볼은 개인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여가 활동으로서의 지속성과 사회적 유대 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평생스포츠로 해석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 접근을 통해 국내 피클볼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피클볼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데 있다. 질적 연구를 통해 총 다섯 가지의 상위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초기 인식’, ‘낮은 진입장벽’, ‘가족·노인 친화적’, ‘기존 시설을 통한 구조적 기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국내 피클볼 산업의 확산을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확산 단계에 있는 피클볼과 같은 뉴스포츠 종목은 체계적인 협회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보,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해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피클볼 산업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확산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보다 확장된 이후, 단일 시점의 분석을 넘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피클볼 산업에서 국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세계 무대 진출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 선수 육성 체계, 경쟁 환경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반이 마련될 경우 스타 선수의 등장과 함께 국내 피클볼 참여 및 관심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피클볼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전문가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참여자나 비참여자의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어린이 등 다양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피클볼 산업에 대한 초기 단계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평생스포츠로서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강소정, 이상희, 허진무(2024). 예비교사의 피클볼 참여경험을 통한 교육적 의미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489-500.
- 고재욱(2025). 피클볼 관련 스포츠손상 유병률 분석: 여성 동호인 대상으로.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9(Special), 69-84. 10.16915/jkapesgw.2025.10.39.0.69
- 김명기, 이경은, 허진무(2025). 중노년층의 피클볼 참여 경험 분석: 선택, 최적화, 보완 이론(SOC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64(5), 27-39.
- 김지훈, 김로빈(2021). 대학생 피클볼 동호회의 여가문화 탐구. **한국체육과학회지**, 30(4), 87-101.
- 박광호, 조은영(2020). 중년여성들의 피클볼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4(4), 85-104.
- 박문환(2003). **현대사회와 평생체육**. 대경북스.
- 손유민(2011). 중학생이 경험한 피클볼 수업의 교육적 의미 탐색: 포토토이스. **한국체육교육학회지**, 30(2), 45-57.
- 유정애, 오수학(2000). 체육 교과명의 현재와 미래. **교육과정 평가 연구**, 3(1), 163-171.
- 이근호(2011).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 29-48.
- 이상희, 류정수, 허진무(2021). 미국 노인들의 피클볼 참여 경험과 성공적 노화: 미국피클볼 협회 (USAPA) 소속 앰버서더 (Ambassador)를 대상으로. **한국체육학회지**, 177-187.
- 임수아, 이록빛, 허진무(2022). 코로나 19 상황 속 피클볼 참여자들의 여가제약 및 여가촉진 경험. **여가학연구**, 149-169.
- 임우택(2001). 지역활성화를 위한 뉴스포츠 도입 방안.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6(2), 239-251.
- 정용문, 김종원(2025). 뉴스포츠 피클볼을 활용한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적용 사례 연구. **미래교육과 융합연구**, 2(1), 185-199.
- Bellm, E. J., Lindish, J., Mourad, W., & Owweye, O. B. (2026). Understanding Upper Extremity Injury Prevalence and Risk in Pickleball Players: A Nationwide Survey. *JOSPT Open*, 4(2), 1-19.
- Casper, J. M., Bocarro, J. N., & Drake, N. R. (2023). Physical activity associated with older adult pickleball participation: A pilot study. *Recreational Sports Journal*, 47(1), 49-56.
- Casper, J. M., Kim, A. C. H., & Bocarro, J. N. (2023). Perceived constraints to pickleball participation among black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32(1), 107-113.
- Chen, Q., Chou, C. Y., Chen, C. C., Lin, J. W., & Hsu, C. H. (2021). The effect of leisure involvement and leisure satisfaction on the well-being of pickleball players. *Sustainability*, 14(1), 152.
- Firouzbakht, P. K., Bagdady, K., Gupta, R., Lu, S. M., & Chen, K. (2025). Quite a pickle: a 10-year increase in pickleball-related hand injuries. *HAND*, 20(5), 790-794.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the

- Foundations of the Sciences, Third Book. Ideas Pertaining to a Pure Phenomenology and to a Phenomenological Philosophy" by Edmund Husserl (Book Review).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16(2), 83.
- Giorgi, A. (2009). The phenomenological mind: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of mind and cognitive science.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40(1), 107-109.
- Greiner, N. (2019). Pickleball: Injury Considerations in an Increasingly Popular Sport. *Missouri medicine*, 116(6), 488-491.
- Guba, E. G., & Lincoln, Y. S. (1994).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163-194), 105.
- Larkin, M. (2024, September 3). *Australia's fastest growing sport -Pickleball - Trilogy Funds*. Trilogy Funds. <https://trilogyfunds.com.au/blog/trilogy/australias-fastest-growing-sport-pickleball/>
- Lee, M. N., Fung, M. B., & Hagiwara, G. (2025). Exploring the Impact of Pickleball for Improving Mood in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A Pilot Study in Japan. *Journal of Functional Morphology and Kinesiology*, 10(3), 352.
- Owoeye, O. B., Yemm, T., Blechle, R., Wayne, M., Kennedy, D., Mourad, W., ... & Howell, T. (2025). Understanding injury patterns and predictors in pickleball players: a nationwide study of 1,758 participants. *Sports Medicine-Open*, 11(1), 100.
- Patton, M. Q. (2015).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Prayudho, S., Nasrulloh, A., & Skaliy, A. (2024). Risk factor of pickleball injury: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Health, sport, rehabilitation*, 10(3), 115-124.
- Rogers, E. M. (1995) *Diffusion of Innovations*. 4th Edition, the Free Press, New York.
- Rogers, E. M. (2003). *Diffusion of innovations* (5th ed.). Free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doi:<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 Ryu, J., Yang, H., Kim, A. C. H., Kim, K. M., & Heo, J. (2018). Understanding pickleball as a new leisure pursuit among older adults. *Educational Gerontology*, 44(2-3), 128-138.
- Stroesser, K., Mulcaster, A., & Andrews, D. M. (2024). Pickleball Participation and the Health and Well-Being of Adults—A Scoping Review. *Journal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21(9), 847-860. Retrieved Apr 27, 2026, from <https://doi.org/10.1123/jpah.2024-0092>
- Tornatzky, L. G., & Klein, K. J. (1982). Innovation characteristics and innovation adoption-implementation: A meta-analysis of findings. *IEEE*

-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1), 28–45.
- Vitale, K., & Liu, S. (2020). Pickleball: Review and clinical recommendations for this fast-growing sport. *Current sports medicine reports*, 19(10), 406–413.
- Webber, S. C., Anderson, S., Biccum, L., Jin, S., Khawashki, S., & Tittlemier, B. J. (2023). Physical Activity Intensity of Singles and Doubles Pickleball in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and Physical Activity*, 31(3), 365–370. Retrieved Apr 27, 2026, from <https://doi.org/10.1123/japa.2022-0194>